

존 오스왈트 박사, 이사야, 세션 17, 이사야. 34-35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John Oswalt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34장과 35장, 17회기입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이나 최근에 처음 방문하신 경우, 테이블 위에 있는 다음과 같은 시트 중 하나에 귀하의 이름과 최소한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를 구독자 명단에 올리기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변경이나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름으로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우편 주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싶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좋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한 주 쉬는 날이고 그것은 공교롭게도 자유 감리교 부흥 주간이므로 다음 주 월요일 밤에 그 예배에 참석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밤에는 쉬고, 우리가 아는 한 이 책을 마치는 6월쯤까지 계속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동일하게 남아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려는 여러분의 한결같은 변함없는 소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을 변덕스럽다고 비난할 때, 사실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당신이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우리의 변덕스러움 때문일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때 지침과 목표와 나침반이 되는 당신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우리 각자의 삶에 이 고대의 단어가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대조를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합시다.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작업해 온 긴 섹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13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 섹션에 어떤 이름을 붙였습니까? 신뢰에 대한 교훈.

전적으로. 신뢰에 대한 교훈. 신뢰라는 주제는 이 부분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책은 우선 7장부터 12장까지의 '신뢰 없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36부터 39까지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신뢰라는 라벨을 붙였습니다. 네,하지만.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신뢰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13장부터 23장까지에서 나라들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우리는 역사의 무대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주권을 행사하시는지 보았습니다.

28장부터 33장까지 우리는 지난 주에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서 기다림이 신뢰의 동의어라는 사실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축복하고 싶어하시지만 실제로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밤 우리는 이 섹션의 결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장으로 구성된 결론은 두 장 사이의 극적인 대조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실제로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인류를 신뢰하기로 선택한다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34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 네 구절을 보면, 오 나라들아 가까이 하여 들으라, 오 민족들아 주의를 기울이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과 세계와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들으라.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모든 군대에 대하여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에 바치시며 도살되도록 내어주셨느니라. 그 살해당한 자들은 버림을 당하고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를 것이며 그 피가 산들을 흘릴 것이며 하늘의 모든 군대가 썩어질 것이며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리라. 포도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듯이 그들의 숙주도 모두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를 13.1-16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곳의 심판은 바벨론에 대한 것입니다. 언어는 어떻습니까? 네, 매우 유사한 언어입니다. 4절부터 시작합니다. 큰 무리의 떠드는 소리가 산 위에 있도다.

나라들이 떠드는 소리, 민족들이 모이는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투를 위해 군대를 소집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먼 땅, 하늘 끝에서 왔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무기는 온 땅을 멸하려 함이니라. 통곡하라, 주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전능자로부터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은 매우 유사한 언어입니다. 13장에서 시작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34장에서도 동일한 언어를 다시 선택하고 있습니다. 온 땅,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그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 감싸는 것.

그 사이에 오는 신뢰에 대한 교훈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들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예. 주님을 신뢰하고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그분은 온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도 심판을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예.

예. 좋아요. 4절. 거기에는 하늘의 군대에 관해 어떤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군대라는 용어에는 어떤 두 가지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은 그 중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이교도들에게 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들. 예.

예. 그러므로 성서에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주로 물리적인 묘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거짓 종교에 관한 진술일 수도 있습니다.

신들. 괜찮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거기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별과 신.

그런 다음 호스트를 세 번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암시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13년도에 있었을 텐데.

호스트에 대한 다른 언급은 무엇입니까? 오른쪽. 하늘의 군대의 주님. 천사들.

따라서 이 세 가지 가능성은 모두 천국의 호스트와 관련하여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신들에게 그토록 폭력을 행사하시는 걸까요? 제가 여기 시트에서 던지는 질문은 '왜 우상 숭배가 우리 삶을 타락시키는가?'입니다. 괜찮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상으로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을 우리 자신의 모델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형상으로 신을 창조한다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신을 얻게 됩니까? 가치 없는. 거짓.

우리는 어떤가요? 좋아요,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속았습니다. 예. 예.

예. 정확히.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인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류가 있습니다.

정확히. 정확히. 우리는 신이다.

신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신들은 크게 쓰여진 인류입니다. 문법이 좋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낮지만 우리보다 더 나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진실하지만, 또한 우리보다 더 거짓됩니다. 인류의 모든 것, 신들은 더 클 뿐입니다. 이는 불일치, 임의성, 신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제가 배경에서 만든 첫 번째 점을 주목하세요. 34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열방과 그들의 군대를 구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그들을 멸망에 바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성서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거친 H.

하람. 그리고 어떤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지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것이 전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것은 부패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을 가리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생각이다. 단순한 학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여리고의 전리품을 만지는 것을 금지한 이유이다. 여리고는 하나님께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무엇이든 자신을 위해 취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흥미 롭습니다. 이것은 좋은 섹족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꽤 잘 알고 있는 아랍어 동족어가 있습니다.

하람. 이 여성들은 그 왕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너무 부패하여 온 세상이 스스로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유일한 선택은 멸망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좋아요.

34, 1~4, 세계. 34, 5~10,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에돔. 이제 묻겠습니다. 1에서 4, 5에서 10 사이의 문학적 관계는 무엇입니까? 좋은.

일반에서 특정으로. 일반에서 특정까지. 여기에 보편적 파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있으며 이제 한 가지 예에 집중하겠습니다.

그것은 13장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주적 멸망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었습니다. 17절에는 열방의 영광이 되는 바벨론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는 두 경우 모두 일반적인 진술로 시작한 다음 특정 진술로 이동합니까? 좋습니다. 이전에 나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입니다. 예제를 사용하면 어떤 가치가 있나요? 괜찮은. 예, 그렇습니다.

가끔은, 아 글썩요, 그것은 일종의 크고 모호한 세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넓은 각도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것을 무너뜨리고 이것이 특정 국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광은 쇠퇴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일반화, 특수화가 여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북쪽과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크고 큰 나라입니다.

에돔이란 무엇입니까? 남쪽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이웃나라. 그래서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파괴가 더욱 직접적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좋아요, 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첫째, 언제, 물론 이것을 완전히 거슬러 올라가야 할 때, 에돔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에서. 그래서 그것은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모세는 에돔을 통과하여 여행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에돔은, 그것이 사해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에돔은 사해의 남쪽 끝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우 척박한 땅이지만 킹스 하이웨이(King's Highway)와 그레이트 코스트 하이웨이(Great Coastal Highway) 사이의 중요한 연결로는 이곳을 통과합니다. 따라서 이는 중요한 무역 관계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페트라라는 도시를 기억합니다. 에돔 사람들이 멸망하고 전멸된 후 아랍 나바테아인들이 그곳으로 이주하여 대략 이 교차점에 페트라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올라가는 길에 에돔을 거쳐 가고자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먹을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물도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말하는데, 에돔 사람들은 '아 안돼'라고 합니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갈 거면 돌아가고 그들이 가는 동안 에돔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막는 것은 꽤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이 무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무리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꽤 충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 허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것을 생각합니까? 최근 오바다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나 봅니다. 오바 누구?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책임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에돔은 바벨론을 도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도망하자 에돔 사람들은 그들을 붙잡아 바벨론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에돔 사람들에 대해 꽤 강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파괴를 비웃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들은 파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하나님께 “오, 내가 당신을 어찌 그리 사랑하였나이까!”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응?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망명에서 돌아온 후의 일이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작고 조그마한 성전이 아니라 옛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메시아는 이미 오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에돔과 비교해 보십시오. 에돔은 포로 생활에서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돌아왔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에돔 사람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도우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도 바벨론 사람들에게 멸망당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곳에 이주한 사람들은 나바테아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로마는 이 지역을 이두미아라고 불렀고, 헤롯 대왕은 이두미아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 민족에게서 그에게 아무런 이득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에돔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모든 나라, 그리고? 죄? 응? 이보다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을 고려하면? 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결국 이곳은 세계 멸망의 땅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면, 아니오.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고 있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막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건 정말, 정말 위험해요. 이제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사업을 위하여 보복하실 날 곧 보응의 해를 정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진술은 이사야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발견됩니다.

우리는 이 두 단어를 동의어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는 나에게 행해진 일에 대해 나 자신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복수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 일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이어지는 그 진술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기분이 상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부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옳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존이 말했듯이 우리가 자유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아, 물론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즉각적인 상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책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정확히.

당신은 내 입에서 그 말을 바로 꺼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과 방법으로 이 상황을 처리하실 것을 신뢰합니까? 그리고 나는 보답할 것이다.

사실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내용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자주 남용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마치 우리에게 복수심에 불타는 신이 있는 것 같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신은 아닙니다.

정확해요, 정확해요. 예, 이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그를 잡을 것입니다. 나는 그를 잡을 것입니다. 나는 그를 잡을 것입니다. 그 무력한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고는 용서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예로 사울과 함께 동굴에 있던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함께 동굴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되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수년 동안 그를 쫓아다니며 그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종 그것을 사용해왔다는 것을 자주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단지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을 열어주셨으므로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아주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희 원수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데이빗은 와, 와, 와, 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처리하겠습니다. 네, 내 생각엔 데이빗이 좋은 순간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두 사건은 확실히 그의 성격 면에서 최고에 가깝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수의 역할을 맡으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응, 응, 응.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똑같습니다. 아 예, 아 예, 예.

이것이 바로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입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나는 당신의 손목을 부러뜨립니다.

당신이 내 손목을 부러뜨리면 나도 당신의 팔을 부러뜨립니다. 당신은 내 팔을 부러뜨리고, 나는 당신의 목을 부러뜨립니다. 당신은 내 목을 부러뜨리고 나는 당신의 머리를 부러뜨립니다.

당신이 내 머리를 부러뜨리면 나는 당신 가족을 죽인다. 당신은 내 가족을 죽이고 나는 당신의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복수의 순환.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뢰와 믿음에 관한 글을 조금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수학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3 더하기 3은 6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대적인 것이 있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라면 우리 스스로 하는 거고, 믿음 부분은 답이 없을 때는 절대적인 거죠.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응, 응.

만약 우리가 2 더하기 2가 뭐든지 주장한다면, 우리는 신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응, 응.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실이 없을 때 신뢰하는 대신.

네 네 네 네. 열린 문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러면 현명한 조언을 하는 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 주시도록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응. 제가 보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죠. 나는 하나님이 분명 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문이 열렸다고 해서 타협의 요소가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당신을 알보는 요소가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거의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작은 남자의 탈출구를 택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을 통과하면 나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여기까지 밀고 나가자. 아래로 뛰어내리자. 여기 9절에서 시작하여 장의 끝까지 이어지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과잉 이미지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썄요, 우선, 이미지가 무엇을 전달하는지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나쁜. 네, 그 말에는 동의하겠습니다. 괜찮은.

쓸쓸함. 파괴. 불. 무엇? 불. 불. 모든 동물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청소부.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살 것이다. 그들은 못 생겼다. 그것들은 부정해요.

그들은 인간의 생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생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 생존의 적입니다.

좋아요. 여기에는 소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말이 없습니다.

개가 없습니다. 고양이가 없습니다. 동물은 인간의 삶에 기여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인간의 삶의 동반자인 존재는 없습니다.

아뇨. 쓸모없어요. 그들은 먹이입니다.

먹이의 동물. 예. 예.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나는 무엇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일까요? 혼돈. 비생산성. 광야에 있을 것입니다.

황야? 자기 파괴. 자기 파괴. 먹이.

음-흠. 그리고 기도하지 마세요. 완전파괴상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지구를 경작하십시오. 환경론자들은 이를 여러 번 사용해왔습니다.

오 예. 네, 서구 세계의 환경 파괴의 원인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가구에 이니셜을 새길 권리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은 당신에게 세상의 남편이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요즘 남편이라는 말이 나쁜 말입니다. 재배합니다.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세상이다. 이것은 자연이 미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자연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자연이다. 그리고 이사야는 여러분이 열방을 신뢰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하게 될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이전의 모든 장을 이런 종류의 요점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세상인가요? 그것이 그가 13장에서 시작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두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지막에 여기에서 그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16절과 17절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찰은. 35로 가보자. 이걸 놓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34장과 35장 사이의 관계, 즉 문학적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행? 차이. 차이. 극적인 대비.

광야와 무엇 사이? 시온. 시온. 좋아요.

광야와 정원. 예. 광야와 정원의 대비.

그런데 35장 1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것이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무엇이 기뻐할 것입니까? 무슨 꽃이 피겠습니까? 황야.

사막. 단지 사막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여기에 정원이 있고,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사막을 선택했습니다. 사막을 가질 것인가, 정원을 가질 것인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막만 가질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사막을 동산으로 바꾸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할 것입니다. 사막은 크로커스처럼 기뻐하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무성하게 꽃을 피우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두 장 사이에 언어적 연결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35장 7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34장 13절에 따르면 광야는 어떠한 것입니까? 자칼의 소굴.

자칼이 눕는 곳에 풀이 갈대와 골풀이 되리라. 아,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막을 가져다가 정원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자칼이 누웠던 곳을 갈대와 골풀이 우거진 곳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괜찮은.

우리는 바로 여기서 신성한 해석을 얻을 것입니다. 2절 중간에 세 곳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 곳은 어떤 곳인가요? 레바논, 갈멜, 샤론.

이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입니다. 물론 두로와 시돈 뒤에 있는 레바논 산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숲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하이파(Haifa) 항구 위에 있는 카르멜 산(Mount Carmel)은 또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폭풍이 그곳의 카르멜 산에 비를 내리게 했기 때문에 무성한 성장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기슭에는 샤론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역시 풍요롭고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서를 통해 이 세 가지를 다산, 풍요, 성장 등의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6장 3절에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만군의 하나님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하늘과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2절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2절의 마지막 진술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구속받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보는 눈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님의 영광이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속을 받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얻는 유익을 경험한다는 것은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며, 항상 당신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무엇?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있으므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작은 소년. 한 사람은 비관주의자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낙관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에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들을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갔고 그는 그들과 함께 일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는 충격 요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아, 감전 말하는 거야? 아니 아니.

우리가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작은 비관주의자를 장난감이 가득한 방에 가두어 놓을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장난감.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그에게 세상이 나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낙천주의자는 말뚝이 가득한 방에 그를 넣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모든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냈습니다. 몇 시간 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그 작은 비관주의자를 향해 내려갔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울부짖을 뿐이야. 그들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누군가 와서 나에게서 이 장난감들을 모두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이런.

글쎄, 아마도 다른 것이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방을 향해 복도를 내려갔을 때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아이는 어딘가에서 갈퀴를 발견했고, 미친 듯이 말뚝을 던지고 휘파람을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 무슨 일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뚝이 너무 많아서 여기 어딘가에 조랑말이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사물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모든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영광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리고 어두운 시간에도 그분의 손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속의 약속은 왜 하는가? 아뇨, 좀 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6장은 이사야의 설교의 즉각적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눈이 멀고 귀머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그들을 눈멀고 귀머거리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아니.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그것은 앞으로 200년 뒤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 먼 사람도 보고 귀먹은 사람도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충실하다면 그것은 성취될 것입니다.

관찰은. 8절. 구속의 약속에 대로가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행이다.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당신이 만들어진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만들어진 목적이 되십시오.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하고 진정한 인간이 되십시오.

산책입니다. 그것은 여행이다. 예.

소의 길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갈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라고 불릴까요? 거룩함의 길.

하나님의 방법. 그의 성격에 대한 길.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길.

구원은 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관계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에 의해 구속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특성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8절의 마지막 말씀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도 그곳으로 걸어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군요. 그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좋아요. 하지만 부드럽습니다. 그것은 직선이다.

척 구멍이 없습니다.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고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그리로 다닐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0절.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본능적인 반응은 '아니요, 아니오'입니다.

우리는 국가들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악의 적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해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결과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자기야. 이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판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분은 구덩이에 내려가 우리를 도로 사러 오십니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가 세상을 광야로 만들 때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그 광야를 정원으로 바꾸시도록 허락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까? 바로 이거야. 우리는 처음부터 그분을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망친 후에 다시 그분 자신을 바치실 때, 그것이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은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이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한숨이 달아날 것입니다. 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분의 창조 목적 자체가 좌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위한 대상을 찾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왜 인류와 인간 국가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기서 35개의 장을 읽었다면 이제 몇 가지 답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고통과 슬픔.

그들은 배신자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배신할 것이다.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꽤 좋습니다.

그들은 답이 없습니다. 인류를 높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굴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2장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인류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우주의 모든 의미가 박탈됩니다.

우리가 우주가 생산할 수 있는 최고라면 우주는 큰 문제에 빠진다. 이것이 바로 현대 철학이 도달한 지점이다. 우리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엉망이에요. 그러니 마음껏 살아보세요. 인류를 믿지 마세요.

우리가 던진 말 중 하나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가? 아니요. 인류는 그의 아들의 죽음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성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면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뢰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불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뢰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종.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뭐야? 그분의 말씀을 구합니다.

믿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서 주님을 기다린다면 나는 무엇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내 의지대로 행동하세요.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미국인.
할수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앉아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용기가 있으십니다. 취약해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취약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모습입니다. 신뢰는 취약성처럼 보입니다. 불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부심.

내가 직접 할게. 뭔가 해야 해. 이기주의.

걱정하다. 불순종.

내 모든 옵션을 살펴보고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예. 조바심.

도자기 가게에 있는 황소 사진. 도자기 가게의 황소, 그렇죠. 내가 기다리기를
거부하고 신뢰를 거부하면 내 방식, 내 타이밍, 내 이해, 내 능력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길은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 길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부정함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길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정원이 있어요. 하지만 무섭습니다.

말해봐, 내가 어떻게 그의 길을 알 수 있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시간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대한 그의 이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글썄요, 그게 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크고 복잡한 책임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메리 조(Mary Jo)가 말했듯이, 그 믿음은 둘과 둘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항상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할 것이다. 그들이하다.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워야 할 반응입니다. 좋아요. 다음 주에 우리는 다시 시험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2주입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2주.

신뢰에 대한 강의를 마치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냥 사도행전 1, 2장을 보다가 생각난건데, 행 1, 2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습니다. 예. 사도행전 1장과 2장. 너희는 내 증인이다.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 아니, 친구.

우리는 가야 해요. 나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마도 베드로가 기초 연설을 했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해야 할 크고 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운전대에 어깨를 얹는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어요, 피터. 무엇?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아, 이런. 그리고 열흘쯤 지나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120명이 세상을 이기려면? 농담이군요. 하지만 그게 당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귀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때쯤 존이 벌떡 일어나서 피터, 머리에 불이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존, 우리가 기다리면서 일생 동안 답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믿어야 한다는 현실도 있지 않나요?

정확하게. 이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는 분명 평생 동안 그 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답이 150년 후의 미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괜찮은. 매우 감사합니다. 몇 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John Oswalt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34장과 35장, 17회기입니다.